

고흥 유자·김 프랑스 식재료 시장 진출

수출개척단 200만달러 수출협약 명장 요리사협회와 업무협약도

프랑스를 찾은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200만달러 수출협약을 맺고 프랑스 요리 명장들과 음식 개발에 협업하며 수출 활성화에 나섰다.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쥘리엔코(대표 지주연)와 농수산물 가공품 200만달러(27억7000만원) 수출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공영민(오른쪽 두 번째) 고흥군수가 지난 7일 프랑스 코르시카에서 열린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 총회를 찾아 관람객들에게 고흥산 유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고흥군 제공>

협약에 따라 고흥 대표 특산물인 고흥 유자와 유자 곡물당, 김이 프랑스 소비자를 만난다. 쥘리엔코는 프랑스에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알리는 K-푸드 상표 '미식가'를 만들었다. 현재 8가지의 고흥 제품은 '미식가' 상표를 달고 판매되고 있다. 리엔코는 파리 루이뷔통 직영 북막쉐백화점 안에 '꼬레' 식품관을 운영하는 등 20개 이상 매장을 통해 한국 음식을 공급하고 있다. 파리 '미식가' 매장은 파리가 주관하는 식문화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전통 발효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흥군은 앞으로 리엔코와 협업해 벨기에 브룩셀의 고급 식품 전문점에도 고흥산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주연 리엔코 대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흥 유자와 유자 곡물당은 프랑스 고급 식재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의 좋은 식재료를 발굴해 유럽 고급 식품 시장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은 이튿날 프랑스 코르시카에서 열리는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 총회'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공영민 군수는 요리사협회와 '고흥 농수산물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951년 결성한 이 협회는 세계 22개국 542명의 유명 요리사로 구성됐다. 프랑스 국립병원과 학교·호텔에 식재료 공급 상담을 하고 인재 육성, 프랑스 요리 홍보 등을 하고 있다.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 총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세계 식품 동향을 논의하는 이번 총회는 네스프레소, 네슬레 등 글로벌 식재료 유통기업 40여 개사가 공식 후원한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450여 명의 프랑스 요리 명장들이 참가했다. 공 군수는 기조연설을 하며 고흥 유자와 유자 곡물당, 김 등 농수산물을 소개했다. 고흥군은 프랑스 요리사협회와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어 유럽 고급 식재료 시장에 고흥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판로를 넓힐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농수산물 수출 협약과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 협업을 통해 고흥 농수산물이 전 세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어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직 임직원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군 캐릭터 'BS삼총사' 이모티콘 배부

보성군이 47회 보성다향대축제(5월3-7일) 개최를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보성군 캐릭터 'BS삼총사' 카카오톡 이모티콘(사진)을 배부한다. 보성군 소셜미디어(SNS) 캐릭터는 보성군 대표 특산물인 보성녹차와 벌교꼬막, 보성키위에 영감을 받아 만든 '녹차몬', '꼬막몬', '키위몬'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우리 동네 캐릭터' 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에 배포하는 이모티콘은 모두 16종으로, 보성다향대축제를 응원하고, 보성 차밭을 즐기는 귀여운 모습을 표현했다. 이모티콘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3만 5000명에게 배포한다. 미리 보성군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두면 차



레대로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다. 보성군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는 보성군의 주요 소식과 축제·공연 정보 등을 간편하게 볼 수 있다. '47회 보성다향대축제'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보성군은 행사장에서 'BS삼총사가 쓴다'라는 보성군 SNS 홍보관을 운영한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농기센터·10개면 '범씨 온탕소독장' 운영

곡성군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농업기술센터와 10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범씨 온탕소독장'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범씨소독을 하면 벼 키다리병과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벼잎선충 등 종자 전염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탈망기 또는 소금물 정선 등을 통해 품질 좋은 범씨를 고른 뒤 완전히 건조한다. 이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벼 종자를 뜨거운 물로 소독하면 된다. 범씨를 65도 물에 7분간(또는 60도 물에 10분간) 담근 후 견져내 찬물에 20-30분간 충분히 식히면 마무리된다.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씨 적정량(10kg 이하)을 그물망에 담아 물 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소독시간 동안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재배의 경우 온탕소독 후 추가로 석회 유



곡성군 '범씨 온탕소독장'에서 범씨를 소독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황(22%액)을 50배로 희석해 24시간 담금 처리하면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9% 이상 높일 수 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061-360-8861) 또는 10개면사무소(곡성은 제외) 산업팀으로 전화하면 범씨 온탕소독 준비사항 등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범씨 온탕소독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과정인 만큼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온탕 소독을 통해 쌀의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순천만에서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월동 마친 순천만 흑두루미 동천 벚꽃길 따라 모두 복상

전년비 41% 증가 7238마리 겨울나

순천만에서 월동을 마친 흑두루미가 모두 복상했다. 순천시는 지난 7일 순천의 시조(市鳥)인 흑두루미가 모두 복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순천만에서 월동한 흑두루미는 7238마리다. 이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2년 11월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순천만으로 역류 입했던 흑두루미 중 절반가량인 3000여 마리가 지난해 가을에 일본으로 내려가지 않고 순천만에서 월동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두루미재단은 순천만 흑두루미 보전과 한국 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흑두루미 월동 개체 수가 늘면서 대대동 흑두루미 희망농업 단지뿐만 아니라 별량면 학산들, 해

룡면 상내들 등 순천만 인근 농경지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다. 여상길과 순천만 탐조대는 흑두루미 탐조 거리가 70-80m로 가까워지면서 숙박과 연계한 탐조 행사가 성황리에 운영됐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큰고니, 황새 등 순천만 조류 중 다양성 증진을 위해 새섬매자기 복원, 무논 조성, 농경지 내 환경정해시설 철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 마동정수장 친환경 정수장 견학지 인기

광양 마동정수장이 친환경 정수장 견학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양시는 마동정수장 유희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에 유치원생·학생·공무원 등의 견학이 잇따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마동정수장은 하루 5만톤의 물을 수송하고 있다. 중마동 등 광양 동부권에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곳에는 70kW 규모 소수력 발전시설과 420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정수장 내부에서 활용하며 연간 1억 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소수력 발전시설은 수어댐과 마동정수장 착수정과 낙차가 약 20m 발생하는 점을 활용하고 있다. 마동정수장 착수정 전단에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마동정수장은 소수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견학 장소로 적합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해마다 유치원, 학생,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수돗물 생산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견학했다. 지난 5일에는 용강초등학교 80여명이 정수장을 찾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4월호

2024년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맨발걷기 EARTHING 열풍

- 맨발로 만나는 자연, 생명의 에너지로 치유
- 광주·전남 맨발걷기 명소들
- '맨발걷기 전도사' 이승래 지회장

맛과 함께 풀리레이 별헤는섬 청춘햇들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①
예향의 뿌리 '공재 윤두서'

호남의 누정 ①-광주 환벽당
푸르며 사방에 두른 옛 문인들의 교류 공간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②
장단 3대 손길로 새긴 곡은 기계, 광양 장도박물관

예향 초대석

자료의 가치 쌓아온 미술 아카데미스트
김달진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④
남도는 지금 울긋불긋 꽃대결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⑦
빠어난 풍광 '해변 옆 미술관' MCASD와 명소들

문화를 품은 건축물-리움미술관
전통, 현대, 미래가 대화하는 명품 미술관

호남의 누정 ②-광주 환벽당
하와이 한인 이민자 공동묘지에 4m 위령비 조각 세운 박석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⑧
각화동 농산물시장,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땅과 연결되어 있다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1960년대 중동 산유국 정탈전 앞둔다 서기 1만104년의 암투